

전환기 축산업의 활력소



‘이윤추구의 극대화’라는 기존의 기업생리에서 과감히 탈피, 축산업 선진화에 책임을 함께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88년 설립, 운영되고 있는 미원축산과학연구소(소장 홍성택)를 찾았다.

이천군 부발읍에 위치한 연구소는 최첨단 실험기자재를 갖추고, 연구원들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특히 전환기 축산업의 부흥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연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산업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원료분석팀, 사양시험팀, 사료개발팀, 질병연구팀으로 조직되어 있다.

Best Health System 도입

양계분야에 Best Health System 도입으로 친숙해진 질병연구분야는 정운의 박사를 고문으로 수의사 5명, 실험요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Best Health System은 개체관리가 어려운 양계질병관리에 계군 전체에 대한 정기적(2개월마다 1회씩) 건강진단을 통하여 면역상태는 물론 질병발생을 미리 예측, 유효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체계이다. 또한 연구소는 각농장의 지역적 여건이나 농장의 상황을 고려, 농장별 백신프로그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위탁점이나 지역과장 등을 통하여 질병검사를 의뢰받고 있다.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 병리해부검사를 하고, 실험실에서 각종 세균검사, 약제내성검사, 바이러스검사, 혈청검사, 병리조직검사, 기생충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종합진단을 내린다고.

종합진단 결과는 농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의뢰농장에 통보하게 된다. 또 연구소는 농장별 병력카드를 작성, 보존하며 다음 검사에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병성감정 561건, 방문지도 62회, 각종 실험실

검사 4,720건을 실시하였다. 또 질병에 대한 세미나를 32회에 걸쳐 1,650명을 대상으로 실시, 양축가들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양축가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세미나를 개최함과 아울러 질병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소가 양축가로부터 요청을 받아 검사해주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집 질병연구팀장은 “현재 검사를 의뢰한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객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판단으로 질병관리를 해주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사료원료 생체소화를 시험

분석팀은 미원사료에 이용되는 모든 원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수분 등은 물론 미량광물질과 아미노산까지 분석하여 최고의 사료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분석팀은 ODF(최적낙농급여)프로그램을 개발, 실용화함으로써 한발 앞선 낙농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ODF프로그램은 각 농장에서 급여하고 있는 조사료의 성분을 분석하여 각 농장별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 비율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

한편 분석팀에 의뢰된 배합사

료의 성분분석은 양축가가 크레임을 걸어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적당히 얼버무리 손해배상을 피하려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축산과학연구소에서는 비타민, 미량광물질까지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이 발견될 경우 이를 인정함으로써 신뢰감을 구축하며, 배합사료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최근에는 원료에 대한 생체실험(INBIVO)을 실시하고 있다. 생체실험은 사료원료에 함유된 영양성분이 가축의 체내에서 이용되는 소화율을 밝혀내는 실험으로써 각 원료가 체내에서 이용될 수 있는 영양적 가치를 분석하고 있다.

축산물 품질개선 연구

사양시험연구팀은 수입개방 등에 대비 축산업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료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 패턴에서 탈피하여 한우 12두를 사육하며 육질을 높이기 위한 사양시험을 하고 있다. 또 양계분야에서는 계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수란을 자체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미원 축산과학연구소는 지난 89년 과학기술처로부터 공인 연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농림수산부로부터 수출

돈육 유해물질 잔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돈육에 대해 항생제, 아플라톡신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천광석 선임연구원은 “선진축산으로 진입하는데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양축가와 좀더 밀착하여 양축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다. 전에 신문사에서 양계분야기자로 활동, 양계인과 친숙한 윤재현씨도 사양분석팀의 일원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라며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에서 첨단분야 연구사업에 편중된 지원을 하며 1차산업과 관련된 연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라는 민간차원의 소비자인 양축가를 위한 활발한 연구사업은 요즘처럼 침체된 축산업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국내의 축산업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볼 때 미원 축산 과학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 취재/(권동원 기자)